

‘사통팔달’ 장흥군, 4차선 군계획도로 개통

장흥고~코아루APT~북부로 개통식...길이 670m

2019년 12월 착공해 2년 3개월만에 공사 마무리

장흥군은 8일 ‘장흥고등학교~코아루APT~북부로 간 군계획도로’ 개통식을 갖고 도로 통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군계획도로는 장흥고 삼거리부터 코아루APT를 거쳐 북부(선거관리위원회)까지 연결하는 길이 670m, 왕복 4차로 도로다.

장흥군은 그동안 시가지지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좁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지역의 대표 축제인 물축제, 명절 기간에는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흥군은 예산 75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장흥고등학교~코아루APT~북부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2019년 12월 착공한 장흥군은 2년 3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도로를 개통했다.

잔여 구간으로 남은 장흥고등학교에서~남부관광로 향양IC진입도로 구간은 30% 보상(43필지 중 13필지)을 진행중에 있다.

군은 총길이 325m B=4차로 구간을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상을 추진중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군계획도로 개통으



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 생활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국도 18호선 가로수 새 단장장 정비사업 추진나서

안전·쾌적 경관·교통사고 예방 기대

진도군이 진도-제주 쾌속 카페리 취항에 대비해 국도 18호선 위치한 가로수를 새 단장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총 33km의 빼어난 경관을 갖춘 드라이브 코스에 매력을 더하는 것으로 미관상 좋지 않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잘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개선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색다른 볼거리 제공 등으로 쾌속 카페리의 취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로수 전정 작업은 수관 솜이를 통한 수형 조성을 위해 가로수관리원, 해안관광도로정비단, 산림분야 재정일자리사업, 소공원관리원 등 인력 33명과 고소작업차 10대가 투입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통해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줄 계획이다”며 “가로수 전정 작업 등으로 인해 일부 도로의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농기계임대사업소, 상반기 영농철 휴일 운영

본소·칠량분점·도암분점·작천분점...6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 운영을 시작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근무는 오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며,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4개소에서 운영한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는 총 55종 505대이며, 본소 198대, 칠량분점 88대, 도암분점 106대, 작천분점 113대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금년 3월 말 기준 760명이 1,100일 임대사용했으며,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임대농기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신형 임대 농기계 17종, 36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 3~4일 전 임대사업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전 신청해야 하며, 사용 전날 오후 5시 또는 사용 당일 방문하면 된다. 임대는 1회당 최대 3일 이내만 가능하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철 농기계 임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휴일 근무를 실시하는 만큼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출고 관리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430-3678), 도암분점(☎061-430-3690), 작천분점(061-430-3670)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어린이 대상

마을영상 제작 교육 운영

강진군은 마량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마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영상 제작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마량면의 다양한 자원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도시재생 아카이브 사업으로, 마량초등학교 3·4학년이 참여했으며 총 6회 진행했다.

교육은 마량면 어린이들이 마을에 대해 배우며 마을 자원을 찾고 토론하는 등 마을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론 수업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영상 제작 기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회차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사회를 진행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영상 제작 교육에 참여한 이승준(남, 4학년) “내가 살고 있는 강진 마량은 바다와 산,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곳이다. 수업을 통해 카메라에 우리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와 아름다운 곳을 잘 담아서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 선정된 마량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마을기록을 포함한 주민참여 마을가드닝과 마을경관개선 사업, 마량 특산품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발굴과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상가홍보 등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은 마을 방송을 전달하는 옥외스피커를 가정내 스피커로 교체한다.

기존 옥외스피커의 경우 방송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정내 스피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달부터 관내 20가구 미만 41마을, 624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해남군 “어르신들 동네방송 이제 잘 들려요”

마을방송 청취 가정내 스피커 설치...이달부터 624가구 우선 대상

가정내 스피커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정내 스피커는 무선방송장치 형태의 수신기로, 방송 녹음 기능이 있어 부재중 방송을 듣지 못한 경우 귀가 후 재 청취도 가능하다.

마을방송은 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각종 행정정보, 농사정보, 재난정보 등을 알리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가정내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9년까지 전 가정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